

“어려운 이웃에 도움되길... 나눔 지속 실천”

김대원 브리브 광주·L7 총장 바이롯데호텔 회장

광주 지역 기업인이자 나눔 실천가인 김대원 브리브 광주·L7 총장 바이 롯데호텔 회장이 성금 기부를 통해 지역사회 안전과 복지 향상에 힘을 보탤다.

22일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광주 사랑의열매)에 따르면 지난 20일 광주 서구 치평동 브리브 광주 바이 롯데호텔에서 김대원 회장, 노진석 광주 사랑의열매 사무처장, 배준열 굿네이버스 광주전남지역본부장, 임영우 선한기업100+원탁회의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천만원 후원금 전달식이 열렸다.

김 회장의 후원금은 광주 사랑의열매 지정기탁을 통해 지원된다. 고립 위기 이웃을 살피는 '1313 이웃살림 사업'을 위해 선한기업100+원탁회의에 1천만원, '4대 사회적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위해 굿네이버스 광주전남지역본부에 1천만원 등 총 2천만원이 전달된다.

이번 기탁 외에도 김 회장은 취약계층 생계비 지원과 무료 급식소 운영을 위한 쌀 기부 등을

최근 광주 사랑의열매 지정기탁 후원 선한기업100+ 굿네이버스 1천만원씩 “사각지대 소외계층 지원 이어가겠다”

이오며 기부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1억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인 광주 사랑의열매 아너 소사이어티 188호 회원으로 가입했다.

김 회장은 고향인 강진군의 인재 육성 등을 위해 2008년부터 강진군장학재단에 장학금을 기탁해 왔으며,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후원도 지속하고 있다.

또한 (사)광주시관광협회 이사, 의료법인 울리브의료재단 이사장,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 광주지역자문위원회 수석부회장 등 다양한 직책을 맡으며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김대원 회장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김대원(왼쪽서 세 번째) 브리브 광주·L7 총장 바이 롯데호텔 회장이 꾸준한 성금 기부를 통해 지역사회 안전과 복지 향상에 힘을 보태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일 광주 서구 치평동 브리브 광주 바이 롯데호텔에서 열린 후원금 전달식.

기업으로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기부를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상생하며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나눔의 가치를 꾸준히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특히 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의 소외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브리브 광주 바이 롯데호텔과 L7 총장

바이 롯데호텔은 각각 상무지구와 총장으로 위치한 광주 지역 호텔로, 롯데호텔앤리조트가 기존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을 리브랜딩해 운영하고 있다.

브리브 광주 바이 롯데호텔은 123실 규모의 객실과 연회장, 미팅룸 등을 갖췄으며, L7 총장 바이 롯데호텔에는 95실 규모의 객실과 라운지, 레스토랑 등이 조성돼 있다. /이연상기자

“조직·재정 혁신해 새로운 100년 준비”

서해연 제46대 광주YMCA 이사장 취임

최고 수준 IT·AI 도입 투명·공정 운영 전문지도자 처우 개선 등도 핵심 목표

“조직과 재정을 혁신해 106년 역사에 더해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최고 수준의 IT·AI 기술을 도입해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서해연(사진) 제46대 광주YMCA 이사장이 취임했다.

광주YMCA는 지난 19일 오후 6시 동구 금남



로 광주YMCA 무진관에서 이사장 이·취임식

을 가졌다. 서 신임 이사장은 약 30년 전 광주YMCA 유지회원으로 등록한 이후 17년간 광주YMCA 이사로 활동했다.

서 신임 이사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광주YMCA는 단순한 시민단체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는 소중한 공동체로, 저는 교회를 섬기듯 YMCA를 섬기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광주YMCA의 표어 ‘청소년에게 꿈을, 지역사회에 밝음을, 지구촌에 평화를’을 늘 되새기며 세 가지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빛나는 전통을 계승하면서 급변하는 시대의 도전에 맞서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다시 세워야 한다”며 “전문지도자들과 함께 광

주YMCA 조직과 재정을 혁신해 106년 역사에 더해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최고 수준의 IT·AI 기술을 도입,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 시스템으로 열악한 재정 문제의 해결책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도 ▲전문지도자 처우 개선 ▲도심공동화에 따른 회관 건물 문제 해결 ▲스포츠센터 건립 주춧돌 마련 등을 이사장 취임 기간 핵심 목표로 삼았다.

서해연 신임 광주YMCA 이사장은 “앞으로 가장 낮은 곳에서 주민들과 회원들을 섬기겠다”며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실무자의 열정을 응원하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광주YMCA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광주YMCA는 1920년 오방 최홍중 목사를 중심으로 결성된 시민단체로 기독교 선교와 농촌계몽, 독립운동, 5·18민주화운동 등 시민사회 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해 왔다. /서형우기자



농어촌공 담양지사, 담양호 일대 환경 정화 활동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는 “최근 용면 담양호 일원에서 공사 직원 20여명과 담양 의용소방대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2026년 상반기 환경 정화 행사’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쾌적한 수변 환경 조성과 맑은 물 보전을 위해 마련됐으며, 참가자들은 방문객의 발걸음이 잦은 용마루길 데크 주변을 중심으로 저수지 내에 방치된 낚시 용품과 빈병, 캔 등 각종 생활 쓰레기와 영농 폐기물들을 수거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이수진 담양지사는 “안전한 먹거리 생산의 첫걸음인 관내 48개 저수지의 철저한 수질 보호는 물론, 청정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어촌공사 담양지사는 매년 농업생산 기반시설물 주변 정화 활동을 정기적으로 추진하며 맑은 물 보전에 앞장서고 있다. /담양=정승균기자



전국자치경찰위원장協, 여수서 37차 정기회 성료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는 지난 19일 여수 소노감호원에서 제37차 정기회를 열고 자치경찰제도 발전과 시·도 간 협력강화 등을 논의했다.

정기회에는 전국 18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사무국장, 관계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지난해 결산 보고와 제대 임원진 선출, 올해 주요 사업 계획 확정 등이 이뤄졌다.

정기회의 연계된 워크숍에서는 향후 자치경찰 정책 방향과 현안 대응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를 대비한 내륙·해안 안전 경비 대책도 발표돼 대규모 국제행사 대응에서 자치경찰의 역할과 책임을 재

확인했다.

황기연 전남지사 권한대행은 환영사를 통해 “‘안전한 자치경찰제’로 전환되면 지역 치안 안 전망이 더욱 좋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7월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활시에서도 자치경찰제가 실질적 권한 위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적극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순관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장은 “대규모 국제행사의 성공은 안전이 핵심”이라며 “18개 시·도 위원회가 긴밀히 협력해 전국 어디서나 주민이 안전을 체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나주시-NH농협, 제휴카드 적립기금 전달식

나주시는 22일 “강상구(사진 오른쪽 두 번째) 나주시장과 제해중(사진 왼쪽 두 번째) NH농협은행 나주시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제휴카드 적립기금 전달식’을 갖고 총 1억2천93만670원을 기탁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기금은 양 기관의 협약에 따라 나주시가 사용하는 법인카드와 각종 단체 보조금 카드, 공무원 복지카드 결제액의 0.1-1%를 적립해 마련됐다.

나주시는 확보된 기금을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 개발 사업 등 나주 발전을 위한 핵심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나주=정승환기자



강상구 부시장은 “전달받은 기금은 시민 복지 증진에 매우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될 것”이라며 “지역 발전 파트너로서 늘 함께해 준 농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나주=정승환기자

여수경찰,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 강력 단속

여수경찰서는 22일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에 대해 변호관 영치와 현장 징수 등 강력한 단속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최근 무인 단속 장비 확대 등으로 과태료 부과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체납 차량 판독기(A VNI) 등 첨단 장비를 적극 활용해 탐지 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은 현장에서 즉시 변호관을 영치하고, 차량 이동이 잦은 주요 관광지와 상습 정체 구간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여수=김진선기자

반려동물 행동 전문가 이웅종씨 동신대 반려동물학과 석좌교수 임용



반려동물 행동 전문가 이웅종(사진)씨가 동신대 석좌교수로 임용됐다.

22일 동신대학교에 따르면 국내 1세대 반려동물 행동지

도사로 활동해 온 이웅종씨를 석좌교수로 임용하고 반려동물학과

의 실무 중심 교육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이 교수는 KBS ‘개는 훌륭하다’, SBS ‘TV동물농장’ 등 방송을 통해 반려 문화 대중화와 동물복지 발전에 기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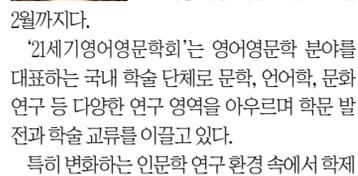
이 교수는 아주대학교 정신의학과 의학석사, 중앙대학교 체육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서울디지털대학교 동물보호전문 석좌교수를 역임했다. 현재 KCMC문화원과 이삭훈원소 대표로 활동하며 반려견 훈련과 반려문화 인식 개선을 이끌어 온 국내 대표 반려동물 전문가다.

또한 국가기관 검사, 동물보호법 개정 참여, 국가자격 행동지도사 및 개기질평가 위원 등으로 활동해왔다.

이 교수는 동신대 반려동물학과에서 1학기부터 반려견 행동교정(기초·응용·심화)과 행동교정 실무 과목을 맡아 학생들을 지도한다.

이웅종 교수는 “동신대 석좌교수로 임명된 것은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자 가슴 뛰는 도전이며 동시에 책임감을 갖게 된다”면서 “37년간 현장에서 축적한 경험을 학생들과 나누며 제2, 제3의 반려동물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선욱기자

김현아 광주대 기초교양학부 교수 제30대 21세기영어영문학회장 선임



광주대학교는 22일 “김현아(사진) 기초교양학부 교수가 제30대 21세기영어영문학회장으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회장의 임기는 오는 2028년 2월까지다.

“21세기영어영문학회는 영어영문학 분야를 대표하는 국내 학술 단체로 문학, 언어학, 문화 연구 등 다양한 연구 영역을 아우르며 학문 발전과 학술 교류를 이끌고 있다.

특히 변화하는 인문학 연구 환경 속에서 학계 간 연구와 비판적 담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김 교수는 영어영문학 및 인문학 분야에서 지속적인 연구와 교육 활동을 이어오며 학문적 성과를 축적해 왔다. 또한 학술대회와 학회 운영 등 다양한 학술 활동에 참여하며 연구 역량을 인정받았다.

김현아 교수는 “영어영문학 연구가 다양한 사회·문화적 맥락과 더욱 긴밀히 연결되는 흐름 속에서 학회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연구자 간 학술 교류를 활성화하고 학문적 확장 가능성을 넓히는 데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선욱기자

북구 삼각동 자율방범대 초소 개소

광주 북부경찰서는 “최근 북구 삼각어린이공원에서 삼각동 자율방범대 방범초소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소식은 자율방범대 역할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형 범죄 예방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자율방범대원과 지역 주민, 유관기관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새롭게 설치된 방범초소는 야간 순찰과 범죄 취약지역 점검 등 자율방범대의 활동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윤찬용기자

결혼

▲이준주(전남매일 주필)·이자영씨 아들 준영군, 양상원·김점숙씨 딸 현경양=29일(일) 오후 3시 토브헤세드(서울 강남구 논현동 72-8).